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9.(목) 17:00 배포 2026. 11. 19.(목) 17:00

문체부, 현장 목소리 담아 인디음악인 첫 무대인 라이브클럽 제도 개선 추진

- 11. 19. 최휘영 장관,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인디음악 육성 관련 간담회 주재
- 라이브클럽 제도 개선, 인디음악 지원 정책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19일(목) 오후, 부산 남구에 있는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인디음악인, 라이브클럽 운영자, 유관 기관 담당자 등과 함께 인디음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라이브클럽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인디음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라이브클럽 '빵' 김영등 대표,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이승철 대표, 관객 모임 '관객연대' 이우진 대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밴드 '세이수미'의 최수미, '테트라포드'의 이유미, 부산음악창작소 담당자 등 인디음악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인디음악인들의 주 활동 무대인 라이브클럽은 음악인들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중음악계의 '현장형 육성기관(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라이브클럽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 현장의 실정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 8월에는 이번 간담회가 열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최휘영 장관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라이브클럽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라이브클럽' 법적 기준 마련으로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인디음악 지원 확대로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뒷받침

이날 참석자들은 라이브클럽의 불안한 법적 지위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무분별한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위해 기초 문화시설인 라이브클럽의 적극적인 보호와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비틀스(The Beatles)도 리버풀의 작은 라이브클럽에서 시작했듯이 라이브클럽은 음악인이 처음 관객을 만나는 곳이자,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업계와 음악인, 관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음악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라이브클럽’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디음악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 등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을 포함해 인디음악의 지원 정책도 함께 논의했다.

최휘영 장관은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디음악을 육성하고 지역 음악 생태계를 살릴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중음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	책임자	과장	김유미 (044-203-3291)
		담당자	사무관	권순재 (044-203-32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